

윤영철 '완벽投'...연패는 없다

KIA, 두산전 9대3...전날 패배 설욕 위닝시리즈 장식

시즌 첫 등판 5이닝 무실점, 5K 빛나는 첫승 신고서 건창, 이적 후 첫 안타·타점·득점·도루 수훈합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윤영철이 전날 두산전 패배를 완벽하게 설욕했다.

KIA는 31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4 신한은행 솔(SOL)뱅크 KBO리그 두산과의 시즌 세번째 맞대결에서 윤영철의 호투와 '이적생' 서건창의 맹활약을 앞세워 9-3으로 대승했다.

올 시즌 첫 등판한 선발투수 윤영철은 5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빛나는 첫승을 신고했다.

두산의 19타자를 맞아 총 89개의 공을 던졌고, 커터와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등 다양한 구종을 구사했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0km를 찍었다.

1회 세 타자를 깔끔하게 정리한 윤영철은 5회까지 삼진 5개를 잡으며, 3안타 1볼넷만 내준 채 두산 타선을 완벽히 틀어막았다.

탄탄한 볼펜진의 호투도 팀 승리를 떠받쳤다.

곽도규와 장현식, 전상현, 최지민(1실점), 김대우(2실점), 황동하로 이어지는 볼펜진은 6회부터 9회까지 5안타 3실점으로 두산 타선을 막았다.

타선에서는 총 14안타가 터진 가운데 서건창이 5회에 이적 후 첫 안타를 기록한 데 이어 8회와 9회에 1타점씩

시타를 때리는 등 4타수 3안타 2타점 맹타를 휘둘렀다.

김선빈과 박찬호도 2타점을 기록했고, 김호영과 김도영, 최원준도 1타점씩 올리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KIA는 두산전 올 시즌 첫 위닝시리즈를 거두며 리그 단독 2위 자리를 지켰다.

경기 초반에는 팽팽한 투수전이 펼쳐졌다. 양 팀 선발투수 윤영철과 곽빈이 4회까지 상대 타선을 꽁꽁 묶으며 0의 행진을 이어갔다.

KIA가 0대0의 균형을 먼저 깨뜨렸다.

5회 서건창의 안타에 이은 도루와 한준수의 몸에 맞는 볼로 만든 2사 1루에서 최원준의 1타점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다. 이어 박찬호의 2루타로 주자 2명을 홈으로 불러들여 스코어 3-0이 됐다.

7회에 1점을 더 도모했다.

볼넷과 2루타, 몸에 맞는 볼로 만든 1사 만루 찬스에서 박찬호의 밀어내기 몸맞는 공으로 1점을 추가, 4-0을 만들었다.

8회에는 3점을 더 얻어 승부에 쐬기를 바꿨다.

무사 1루 상황에서 김선빈이 2루타를 터뜨리며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계속된 찬스에서 서건창과 김호영



KIA 타이거즈 투수 윤영철이 3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 역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의 적시타까지 터지면서 스코어는 7-0까지 벌어졌다.

KIA는 8회 희생플라이와 9회 투런 홈런을 맞고 3점을 내줬으나, 승부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김대우에 이어 9회 마운드에 오른 황

동하는 남은 2개의 아웃카운트를 채워 KIA의 9-3 승리를 지키며, 위닝시리즈를 완성했다.

KIA는 2일 장소를 수원으로 옮겨 kt wiz와 주중 3연전을 갖는다. /주홍철 기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31일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에서 8회 바리크 데뷔 첫 홈런을 터뜨린 후 타구를 바라보고 있다. /AP=연합뉴스

MLB 데뷔 3경기만에 첫 홈런 '광'

이정후 '터졌다'

한국 선수로는 15번째

이정후(25·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두 번째 타석까지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유격수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벽을 뚫지 못했다. 하지만 세 번째 타석에서 타구를 외야로 보내며 3경기 연속 타점을 올리더니 네 번째 타석에서는 바리크 데뷔 첫 홈런을 작렬했다.

이정후는 3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팻코파크에서 열린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정규시즌 샌디에이고와의 방문 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2타점을 올렸다. 하이라이트는 8회였다.

샌프란시스코가 3-1로 근소하게 앞선 8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이정후는 볼카운트 1볼 1스트라이크에서 샌디에이고 왼손 볼펜 톰 코스그로브의 시속 125km 스윙퍼를 잡아당겼다. 타구는 시속 168km로 124m를 날아가 우중간 외야 관중석에 안착

했다. 이정후는 담담한 표정으로 다이아몬드를 돌았지만, 관중석에 앉아 아들이 MLB 첫 홈런을 치는 장면을 지켜본 이종범 전 LG 트윈스 코치는 크게 웃었다.

29일 바리크 데뷔전에서 3타수 1안타 1타점을 올린 이정후는 30일에는 첫 멀티 히트(5타수 2안타 1타점)를 달성했고, 데뷔 3경기째인 이날 홈런포까지 쏘아 올리며 바람몰이를 시작했다.

올해 바리크에 진출한 이정후는 3경기에서 12타수 4안타(타율 0.333), 1홈런, 4타점으로 순항 중이다.

이정후가 마수같이 아치를 그리면서 MLB에서 홈런을 친 한국인은 15명으로 늘었다.

추신수, 강정호, 최희섭, 최지민, 김하성, 이대호, 박병호, 김현수, 박준, 박찬호, 류현진, 백차승, 황재균, 배지환이 이정후에 앞서서 손맛을 봤다.

이날 샌프란시스코는 샌디에이고를 9-6으로 꺾고, 1패 뒤 2연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토트넘의 손흥민이 31일 열린 EPL 30라운드 루턴 타운과의 홈 경기에서 후반 41분 역전 결승골을 터뜨린 후 포효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손흥민, 시즌 15호골 폭발

루턴 타운전 2-1 역전 결승골...토트넘 통산 득점 단독 5위

한국 축구 간판 손흥민이 경기 막판 짜릿한 결승 골을 뽑아내며 한창 4위 싸움에 바쁜 토트넘(잉글랜드)에 귀중한 승점 3을 안겼다.

손흥민은 31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30라운드 루턴 타운과 홈 경기 후반 41분 역전 골을 터뜨리며 팀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손흥민은 1-1로 팽팽하던 후반 41분 왼 측면을 질주하던 티모 베르네에게 전진 패스를 공급한 후 페널티지역으로 쇄도했다.

베르네가 측면에서 넘겨준 패스가 브레넨 존슨을 거쳐 골대를 정면으로 마주 본 손흥민에게 연결됐고, 손흥민

이 침착한 마무리로 골망을 흔들었다. 득점 직후에는 전매특허인 '찰카 세 싸움에 바쁜 토트넘(잉글랜드)에 귀중한 승점 3을 안겼다.'

이는 손흥민의 시즌 15호 골이자 공식 시즌 3경기 연속골이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올 시즌 리그에서 15골 8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재러드 보언(웨스트햄),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와 EPL 득점 순위에서 공동 4위에 자리했다.

더불어 이 골로 손흥민은 토트넘 구단 역대 득점 순위에서 단독 5위에 이름을 올렸다.

160골이 된 손흥민은 1960년대 활약한 웨일스 출신 공격수 클리프 존스(159골)를 넘었다. /연합뉴스

"토요일 홈경기는 어린이 팬들이 주인공"

KIA, 초등생 대상 챔핑 투어...내일 APP에서 1기 참가자 모집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올 시즌 토요일 홈경기마다 어린이를 위한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투어를 마련한다.

만 7-12세 어린이 팬(2024 KIA 타이거즈 키즈클럽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챔피언스 필드 투어는 그라운드 체험, 선수단 훈련 관람, 챔피언스 필드 시설 투

어, 볼펜카 체험, 역사관 견학, 기념 촬영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선수단이 사용하는 실내연습장, 웨이트 트레이닝실 등 일반 팬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시설을 체험할 수 있어 어린이 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KIA 타이거즈 마케팅팀 관계자

단 공식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 중 3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3일 오후 3시 이후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참가자로 선정된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없이 구단 관계자의 인솔로 투어 프로그램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올 시즌 토요일 홈경기마다 열리는 챔핑 투어에 참가하고 싶은 어린이는 경기 1주일 전 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투어는 무료로 진행되며,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

는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위한 팬 서비스이자, 구단의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올 시즌 토요일 홈경기마다 경기장 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선수들의 공간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타이거즈를 사랑하는 어린이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투어는 무료로 진행되며,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

'뼈아픈 역전패'...문민서, 빛바랜 데뷔골

광주FC, 대구전 1대2



홈 3연승에 도전했던 광주FC가 뼈아픈 역전패를 당했다.

광주는 31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2024' 4라운드에서 대구FC에 1대2로 역전패 당했다.

이희균, 이건희, 문민서, 정호연, 최경록, 가브리엘, 이민기, 안영규, 포포비치, 두현석, 김경민이 4-4-2 포메이션으로 나선 광주가 기선을 제압했다.

전반 20분 이희균이 페널티박스를 돌파하다 요시노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

주심은 곧바로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광주 U-18 금호고 출신 영건 문민서가 침착하게 마무리해 선제점을 올렸다. 문민서는 이날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신고하는 기록을 세웠다.

기세를 탄 광주는 대구를 거세게 몰아부쳤다.

전반 41분 코너킥으로 올린 크로스



31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대구FC와의 경기에서 K리그 데뷔전을 치른 광주FC 문민서가 전반 24분 페널티킥 선제골을 터뜨린 후 기뻐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를 포포비치가 머리로 헤더로 연결했지만 대구 수비수를 맞고 골문을 살짝 벗어났다.

전반 49분 광주가 동점골을 내줬다. 박스앞에서 요시노에게 결정적인 슈팅을 허용했다. 전반은 1대1로 종료됐다.

광주는 후반 시작과 함께 박태준, 엄

지성을 투입, 분위가 반전에 나섰다.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던 광주는 후반 21분 이희균과 이건희를 빼고 베카와 허율까지 투입,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하지만 후반 31분 대구 세징야의 크로스에 이은 에드가의 헤더골을 막지 못해 역전을 허용했다.

광주는 동점골을 노렸지만 골로 연

결시키지 못했다. 후반 35분 가브리엘의 슈팅과 후반 40분 베카의 회심의 슈팅이 모두 골대 위로 벗어났다. 종료직 전 허율의 헤더도 골문을 외면했다. 이후 광주는 날카로운 공세를 펼쳤으나 라인을 내리고 빗장수비로 맞선 대구의 벽을 뚫지 못하고 1대2 패배를 떠안았다. /박희중 기자